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한 연구 -‘Perhaps Love(사랑인가요)’를 중심으로-

문화영,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hwa02g@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A Study on the Remake of Popular Songs -Focusing on the song ‘Perhaps Love(Is it love?)’-

Hwa-Yeong Mun,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요약

현대의 대중음악은 빠르게 변화하며 많은 양의 신곡을 배출하고 있다. 많은 신곡 중 우리는 리메이크곡을 많이 접할 뿐만 아니라 인기차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가요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많은 인기를 얻은 ‘Perhaps Love(사랑인가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리메이크곡은 악기 구성, 보컬 코러스, 멜로디, 연주기법 등 원곡의 의도는 헤치치 않으나 시대에 흐름에 맞추어 수정을 가하여 젊은 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버거운 기성세대들에게는 친밀감과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리메이크곡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다 보니,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창작의 고통이 적으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다. 다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Perhaps Love(사랑인가요)

1. 서론

하루에도 수십 곡의 신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친숙한 제목을 가진 곡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리메이크곡이다. 리메이크(Remake)는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곡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1]. 근래에는 대중들의 향기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영화 등의 OST로도 그 시대의 원곡보다는 다른 가수가 녹음하여 리메이크한 곡을 많이 쓰고 있다. 리메이크는 어떤 가수가 부르고, 어떻게 편곡하나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원곡이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성공적인 곡이라고 해도, 의도를 많이 헤치거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진다.

본 논문은 원곡과 리메이크곡의 분석을 통해 리메이크에 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Perhaps Love(사랑인가요)’는 원곡과 리메이크곡 모두 대중의 큰 인기를 받은 곡이기에 해당 곡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Perhaps Love(사랑인가요)’는 2006년에 제작 및 방영된 MBC 수목드라마 ‘궁’의 OST이다. 당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인 만큼, OST인 ‘Perhaps Love(사랑인가요)’ 또한 미니홈피의 BGM으로 설정해놓는 등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이 막 시작되는 느낌을 편안하면서도 고운 언어를 가사에 담아냈다[2]. 하울, 제이가 노래를 불렀으며, 작사는 김이나, 작곡 및 편곡은 박근철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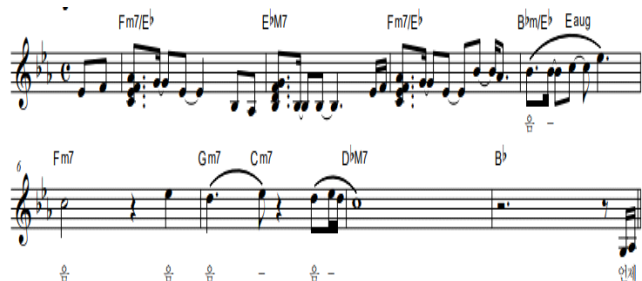
2.1 Perhaps Love(사랑인가요)-하울, 제이

노래를 부른 Howl(하울)의 본명은 김동욱으로, 2005년 1집 앨범 <한 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로 데뷔하였으며, 감미로운 목소리가 강점인 발라드 가수이다. 아시아의 ‘미성천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수많은 해외 팬을 보유한 차세대 한류스타이기도 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죽일 놈의 사랑’ 등 10여 편이 넘는 드라마 OST로 참여하며 프로듀서로서의 역량까지 인정받은 실력과 가수이다.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J(제이)의 한국 이름은 정재영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

국제 미국인 가수이다. 대표곡은 ‘어제처럼’이다. 곡의 선정과 실력은 상당히 호평받았으며, 곡의 작사, 작곡에도 참여한다 [3]. 작사에 참여한 김이나는 2003년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당시 작사가로서의 경력은 길지 않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적이 좋은 편이다. 히트곡이 300여 개이며 저작권료 수입 1위로 오르기도 하였다. 작곡 및 편곡에 참여한 박근철은 ‘Perhaps Love(사랑인가요)’ 외에도 김종국의 ‘친구에서 연인으로’, 레드벨벳의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핑클의 ‘영원히’, 임재범의 ‘사랑’ 등 400여 곡에 참여한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작곡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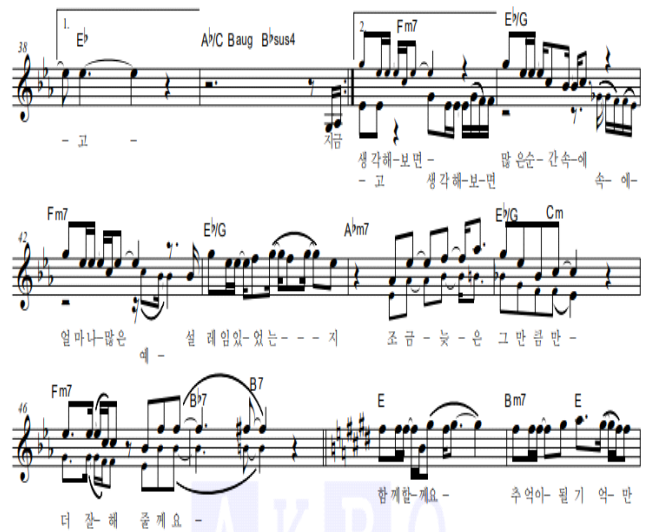
2.1.1 곡 분석

2000년대에 주로 사용된 전자음악 사운드의 악기를 사용하였다. 일렉기타, 전자피아노, 드럼, 베이스기타, 벨, 스트링 등이 사용되었으며 보컬 코러스를 삽입하여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내었다. 전주에는 전자피아노, 스트링,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보컬 코러스가 사용되었으며 후렴의 전 부분인 Verse(벌스)에서는 전자 악기를 추가로 사용하여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후렴에는 벨을 추가로 사용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2절이 끝난 후 분위기가 고조되는 Bridge(브릿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악기를 단조롭게 사용하고 보컬 코러스로 패드를 쌓음으로써 마지막 후렴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1] Perhaps Love(사랑인가요)-하울, 제이 전주

전주는 8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피아노, 드럼, 베이스기타로 시작하여 4마디부터 코러스의 허밍을 패드처럼 사용하였다.



[그림2] Perhaps Love(사랑인가요)-하울, 제이 Bridge

브릿지 부분은 8마디로, 2절 후렴이 끝나면서 시작된다. 남자 메인보컬과 여자 메인보컬이 번갈아 가며 노래를 주고받으며 시작되고 보컬 코러스가 ‘우’ 발음으로 패드를 쌓고 악기의 연주가 더 험란해지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브릿지의 마지막 음은 원래의 음정보다 반음을 높여 마지막 후렴에서의 전조를 예고한다.

2.2 Perhaps Love(사랑인가요)-에릭남, 치즈

에릭남과 치즈가 부른 ‘Perhaps Love(사랑인가요)’는 2017년에 발매된 앨범[Your BGM Vol. 1]의 수록곡이며 박근태와 옥정용이 편곡하여 리메이크한 곡이다[4].

노래에 참여한 에릭남(Eric Nam)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수로 2011년 MBC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 시즌2를 통하여 가수로 데뷔하였다. 2016년부터는 인터뷰와 진행 능력으로 주목받는 MC 신에 유망주로 꼽힌다. 그리고 가수 치즈(CHEEZE)는 1인 인디밴드로, 공식적으로 2010년 12월 13일에 결성됐으며 본래 4인 밴드(달총, 구름, 물로, 무디)로 출발했다. 현재는 멤버 1명 달총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멤버 달총은 톡톡 터지는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편곡에 참여한 박근태는 대한민국의 작곡가로 조영수와 김도훈의 바로 윗세대에 위치하는 히트곡 메이커이다. R&B부터 발라드, 댄스곡까지 대중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곡을 뽑아내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곡 개개의 퀄리티 역시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가 멜론 1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옥정용은 2005년 테이의 ‘어떤 날’의 작곡가로 데뷔하였으며 드라마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녹색마차’, ‘좀비탐정’, ‘이런 꽃 같은 엔딩’ 등 다수의 드라마 OST에 참여하였다.

2.2.1 곡 분석

원곡과는 달리 어쿠스틱한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스트링 등이 사용되었으며 보컬 코러스의 경우 원곡보다는 사용 횟수를 줄여 메인보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스트링의 사용 횟수를 늘려 자칫 보컬 코러스의 빈자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풍성하게 채웠다. 전주에서는 피아노, 스트링, 메인보컬의 허밍으로 가벼운 분위기로 시작하였으며 Verse부터는 드럼, 베이스 기타, 스트링, 피아노를 사용하였다. 다만 드럼의 연주를 원곡보다는 가볍게 하여 어쿠스틱한 분위기를 더 명확히 하였다.



[그림3] Perhaps Love(사랑인가요)-에릭남, 치즈 전주

전주는 원곡과 달리 4마디로 구성하였으며 피아노 반주와 함께 시작하여 남자 가수와 여자 가수가 허밍을 주고받으며 어쿠스틱한 느낌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 강조하였다. 또한 멜로디를 편곡하여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준다. 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4] Perhaps Love(사랑인가요)-에릭남, 치즈 Bridge

브릿지는 8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나, 원곡과는 달리 2절 후렴

이 끝나고 1마디를 더 연주한 후에 브릿지가 시작된다. 또한 원곡처럼 악기를 더욱 현란하게 연주하기보다는 메인보컬 2명의 애드리브 라인을 추가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원곡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음의 음정을 받음 높여 전조를 예고한다.

3. 결 론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곡임에도 어떠한 수정을 가하는가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팬(fan)층이 두터운 가수를 메인보컬로 활용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을 먼저 이끌었다. 그 시대에 주로 사용되는 악기를 사용하여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요소는 인트로와 브릿지 파트의 편곡으로 극대화하여 대중들의 감성을 더 크게 자극하였다. 현대에서 자칫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보컬 코러스는 단조롭게 구성하여 메인보컬에 더 집중하고 현대에 듣기에 이질감이 없도록 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편곡하고 대중적인 가수가 메인보컬을 하면서 젊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근래의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가 버거운 기성세대에게는 신곡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악의 큰 목적인 소통이라는 것을 해낸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메이크곡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곡이다 보니, 창작곡보다는 접근성이 좋고 창작의 고통이 적으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창작을 중요시하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함이 있다. 다만 사회적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박선민, 「대중가요 리메이크와 복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리메이크 · 표절 · 번안 · 샘플링>
- [2] 네이버 블로그, Perhaps Love(사랑인가요), [https://naver.me/5jj3YmZE\(2022.09.25.\)](https://naver.me/5jj3YmZE(2022.09.25.))
- [3] 네이버 블로그, 하울 제이, [https://blog.naver.com/pingu96/222532070483\(2022.09.27.\)](https://blog.naver.com/pingu96/222532070483(2022.09.27.))
- [4] 멜론 앨범 정보, 「Your BGM Vol. 1」, [https://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0100657\(2022.10.11.\)](https://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0100657(2022.10.11.))